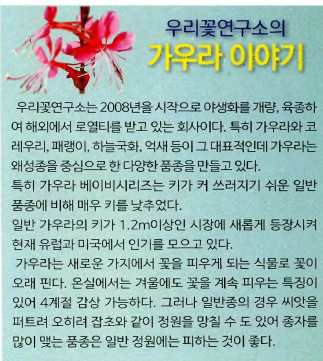




가우라는 일반적으로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 식물과 야관목의 20여 종의 속으로 북미의 추축한 지역과 대륙원에서 자란다. 새로운 꽃은 주로 늦은 오후에 피어 다음 날 정오를 넘기면서 사그라들어 수명이 짧아 주로 반과 오전에 가장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가우라는 새싹이 나오면 무조건 꽃을 피우는 종상의 꽃차례를 가지며 매우 장기 개화 형태이다. 이른 봄부터 피어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꽃을 피우고 있다.

일반적인 품종들은 키가 커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나비가 날아 앉는 듯한 아름다움을 준다. 최근에 개발되는 품종들은 60cm 이하로 자라고 그 대표작인 종은 우리 꽃연구소가 개발한 베이비 시리즈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주이남에서는 월동이 가능하지만 경기이북에서는 겨울 보온을 필요로 한다. 재배는 비옥하고 축축하며 밝은 태양 아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키르나 건조하거나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도 잘 자란다. 최근 우리나라의 혼합정원에 빠지지 않을 만큼 인기가 높은 데 특히 장기간개화를 요하는 도로가 등에 열식해도 좋다.



우리꽃연구소는 2008년을 시작으로 야생화를 개량, 육종하여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회사이다. 특히 가우라와 코레우라, 패랭이, 하늘꽃, 엑새 등이 그 대표작인데 가우라는 왜성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품종을 만들고 있다. 특히 가우라 베이비시리즈는 키가 커 쓰러지지 쉬운 일반 품종에 비해 매우 키를 낮추었다. 일반 가우라의 키가 1.2m 이상인 시중에 새롭게 등장시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가우라는 새로운 가지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식물로 꽃이 오래 핀다. 온실에서는 겨울에도 꽃을 계속 피우는 특징이 있어 4개월 감상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반경의 경우 씨앗을 퍼트려 오히려 잡초와 같이 정원을 망칠 수 도 있어 종자를 많이 맺는 품종은 일반 정원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우리꽃연구소의 가우라 신제품

1. 베이비시리즈

베이비 시리즈는 우리꽃연구소가 교배육종 후 돌연변이 유기에 의해 육성된 품종으로 현재 하양, 핑크, 퍼플, 레드 그리고 글든트리로 대표되는 시리즈 품종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키가 작고 많은 가지들 발생시켜 무한한 꽃을 피워내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절간이 짧고 많은 가지 끝에서 피워내는 수많은 꽃을 4개월 감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품종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 유럽과 미국에 소개되어 시판중이거나 시험재배 중이다.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최선의 품종들이다.



2. 고추장자리, 실잠자리

이 품종들은 가지가 늘어지는 형태로 자라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일품이다. 행잉 바스켓에 기타의 꽃들과 함께 심어도 좋고 특히, 거리의 박스 화분 등에 심으면 좋다. 키가 크고 늘어지는 특성과 꽃이 오래가는 특성이 있어 대형군락 식재에도 알맞다.



3. 드래곤

키는 조금 크지만 꽃잎에 선명한 선홍의 선이 있어 매우 강렬한 품종이다.

직립형의 줄기에 꽃이 3-4개가 동시에 피는 특성으로 매우 화려하고 강한 품종이다. 특히 도로가의 열식이나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좋다. 줄기가 강건하고 세력이 좋아 재배가 매우 쉽다. 키를 낮추고 더욱 많은 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 2회 정도 커팅해 주면 더욱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커팅하는 시기는 6월 말과 8월 말 찬바람이 불면 잘라주어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맞을 수 있다.



4. 웨딩마치

웨딩마치는 처음에 흰 꽃이 피었다가 점차 분홍색으로 바뀌어 한 포기에 흰색과 분홍색 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꽃이다. 특히 고온기 보다는 겨울과 봄, 가을 온도가 낮을 때 더욱 선명한 혼합의 꽃색을 볼 수 있는데 분화용은 물론 정원용으로도 알맞다. 이 품종도 연 2회 정도의 커팅을 해주면 더욱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가우라는 커팅 후 약 10-15일이면 새로운 꽃을 만개시킨다.



5. 리본시리즈

리본 시리즈는 하양과 핑크색의 꽃잎에 무늬를 가지는 보색 꽃을 피우게 되는 품종으로 세력이 강하고 꽃이 큰 특성을 가진다.

키는 중간 정도 형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오후에 꽃을 빨리 피우는 품종으로 하루 종일 꽃이 만개한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도로가에 열식하거나 혼합정원에 좋고 대형 분화용 식물로도 추천한다.





행수는 식물이 "행복한 수직정원"이라는 뜻이다. 수직정원 10년, 벽화수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래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수직정원이다. 그 용도도 다양하여 수직의 인공암반, 콘크리트 구조물, 건물 외벽의 피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시 꽃담, 가드레일, 도로분리대, 실내 등에도 적용가능하다. 포켓이 크고 내구성이 강하여 초화류, 관목 등 다양한 식물 식재가 가능하고 시공도 매우 간단하게 설치가능하다. 한변의 설치로 오랫동안 경관이 유지되며 수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특허공법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제든지 식물의 교체가 용이하고 부직포 소재로 물을 흡수하고 있어 관수를 자주 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수분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실내외 설치가 가능하며 계절과 환경에 따라 식물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수직의 푸르른 녹색 바탕 위에 시기별로 푹푹 튀어나오는 아름다운 꽃,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행수는 상상을 바로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

행수 시기적변화

① 시공전



② 시공직후(8월)



③ 시공 1년후



행수 시공사례



남산1호터널



부산 중4동사무소 옥상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청

잎의 색감이 아름다운 양국수나무



우리는 국수나무라는 쉽고 재미있는 식물을 알고 있다. 산기슭이나 냇가 주변에 많이 나는 관목으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국수나무는 나무의 심부가 옥수수 경처럼 생겼는데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얇은 가지를 이용심부를 길면 국수가 기계에서 밀려나오 듯 국수모양과 같이 심부가 빠져나온다. 때문에 국수나무라 불린다. 아직 조경 용로는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약간의 그늘에 식재하면 매우 좋다. 우리의 국수나무는 학명인 *Stephanandra incisa*로 주로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양국수나무가 국내에 소개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양국수나무는 하얀 꽃이 크게 피어 오히려 공조팝나무에 더 가깝고 행수도 우리의 섬국수나무와 같은 *Physocarpus* 속 식물로 형태적, 생태적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황금색의 양국수나무는 '루테우스'(*Physocarpus opulifolius 'Luteus'*)라는 품종으로 미국원산이다. 이 품종을 종산국수나무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이름의 차임이 잘못된 듯하다. 그리고 자엽양국수나무라 하여 인기가 높은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이 '디아볼로'(*Physocarpus opulifolius 'Diabolo'*)라 하는 품종이다. 이들의 특징은 물 배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고 햇빛을 좋아 하며 일부 약간의 음지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 따라서 이들의 이용은 주로 문양과 칼라를 보여주 기 위해 이용된다. 하지만 황금색의 루테우스는 햇빛이 강한 곳에서는 여름에 잎이 타는 현상이 있고 디아볼로는 여름이 되면 적적하고 어두운 청갈색을 나타내 약간의 관상가치가 떨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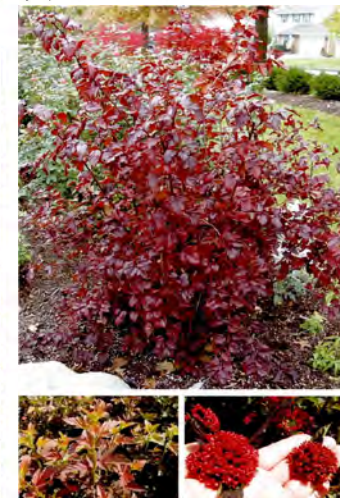
루테우스(*Physocarpus opulifolius 'Luteus'*)



다트스 골드(*Physocarpus opulifolius 'Dart's Gold'*)



최근 이들의 유사종이긴 하지만 많이 개선되어 여름에도 잎이 타지 않고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는 '다트스 골드'(*Physocarpus opulifolius 'Dart's Gold'*)와 여름에도 진한 자엽과 적엽을 나타내는 '레드바론'(*Physocarpus opulifolius 'Red Baron'*)이 최근 소개 되고 있다.



레드바론(*Physocarpus opulifolius 'Red Baron'*)

이들 양국수나무는 잎의 칼라와 줄기의 칼라 그리고 꽃과 열매에 있다. 이른 봄 새싹을 피우며 발현하는 황금색과 초콜릿색은 매우 아름다워 탄성을 자아낸다. 그리고 꽃은 5월에 하얗게 피는데 자엽계는 약간의 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공조팝과 같이 피어나는 꽃은 아름답다. 하얀의 꽃이 주먹처럼 많은 꽃이 한꺼번에 피어난다. 그리고 꽃이 지면서 그 이삭이 또 한 번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바로 꿀벌이라는 꼬투리가 주황색과 빨강색으로 익어가며 새로운 꽃송이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여름내내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리고 겨울에는 줄기가 또 한 번의 아름다움과 관상의 가치를 주어 아름답게 보여 주는데 특히 레드바론의 줄기는 겨울에 검게 보여 더욱 기하학적인 멋으로 다가온다.

이들의 관리는 매우 쉬운데 번식은 주로 삽목으로 하고 봄 가을로 커팅이 가능하다. 새순에 꽃을 피우게 되므로 이른 봄 나무 수형을 잡고 장마가 끝나면 솟자라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정리하면 된다. 참고로 새순에서는 좀 더 밝은 칼라를 보여준다.

주로 적용 가능한 장소는 피복지에 포인트로 적용하거나 열식으로 심어 생울타리 개념으로 커팅하면 좋다. 물론 황금색과 적색을 섞어 구간별로 나누면 더욱 좋다. 정원에서는 포인트 소재로도 매우 좋다. 토양을 별로 가리지 않아 어떤 곳에서도 잘 적응하므로 옥상이나 약간의 음지에서도 좋다. 다만 주요 관상 포인트가 잎의 칼라를 보는 것이므로 너무 건조함은 피하는 게 좋다. 🌸

“ 이른 봄 새싹을 피우며 발현하는 황금색과 초콜릿색은 매우 아름다워 탄성을 자아낼 만하다. ”

이색적인 꽃치 니포피아

- 이색적인 꽃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주목
-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일품이다.



시원한 대형의 꽃무리 부처꽃 탑

- 일반 부처꽃보다 1.5~2배 정도 더 큰 꽃대
- 큰 무리를 이루면 더욱 효과적이다.

로열티



행복, 행운, 사랑의 클로버 클로버 초콜릿행복

- 잎이 흑갈색으로 세잎(행복), 네잎(행운), 다섯잎(사랑)이 같이 나오는 이색적인 품종
- 색감이 좋아 문양을 연출할 때 좋다.



화색이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톱풀 파스텔

- 고급 화색, 고급 느낌
- 정원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다.



시원하고 아름다운 여름의 귀공자 리아트리스 화이트

- 하얀색 꽃망이
- 개화가 길고 초형이 아름다운 조경식물



강렬한 화려함 숙근왜성천인국

- 키가 작은 여름 대표식물
- 아름답고 화려한 꽃은 시선을 집중시킨다.



화려하고 풍성한 정원식물 작약

- 꽃이 크고 화려해 풍요, 부귀의 상징
- 대면적 식재시 꽃백합 혹은 가을꽃과 혼성 식재하면 좋다.



분홍의 화려한 꽃방석 분홍구절초

- 가을 연초의 대표적인 수종
- 키가 일품적이고 부드러운 화색의 구절초



빨강외 화색, 구형의 화형 큰깽의비름 만추

- 뛰어난 전체 수형과 모양
- 키가 균일하고 서리가 내린후에도 빨강외 화수를 감상할 수 있다.



화려한 구근식물 크로코스미아 레드킹

- 빨강외 화려함
- 꽃이 매우 화려한 최고의 여름식물



아름다운 가을햇살에 어울리는 파니쿰

- 아름다운 초형과 이삭
- 무리를 지어 식재하면 더욱 좋다.



춥불형의 하얀색 꼬리풀 꼬리풀 다이아나

- 시원한 느낌을 주는 여름꽃
- 꽃대가 길어 아름다운 정원연출에 안성맞춤



다양한 화색의 가을연출

아스타

- 다양한 품종의 다양한 화색
- 생육이 빠르고 다화성의 꽃은 매우 아름답다.



하늘용담

- 잎의 모양, 식물품, 화색, 화형이 모두 좋은 용담
- 늦가을까지 보석같은 꽃을 피운다.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엔 상록

상록잔디패랭이

- 우리꽃 연구소의 품종보호를 받는 패랭이
- 상록잔디패랭이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로얄티



백두산애기기린초

- 극건조에 가장 강한 기린초
- 잎과 꽃, 열매까지도 아름다운 매트형의 소재이다.



금계국 골든글로브

- 겹꽃이 아름다운 신품종 금계국
- 키가 작고 꽃이 아름다워 정원용으로 좋은 소재이다.



톱풀 진주

- 순백의 고급정원용 소재
- 다른 톱풀 품종과 어울려 심으면 좋다.



어떤 식물과도 조화로운 소재

개량원추리

- 화색이 매우 다양하고 꽃이 화려하다.
- 대면적 식재를 비롯, 어떤 현장에도 잘 어울린다.



쫄쫄형의 대형 꼬리풀 페셔네이션

- 자주빛 아름다운 여름꽃
- 키가 커서 뒤줄라인 또는 포인트 식물로 제격이다.



이슬처럼 아름다운 잎 실은쭈

- 부드러운 질감의 은쭈
- 은색의 질감은 어떤 정원에도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블루톤의 고급스런 소재 페로브스키아

-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잎의 조화
- 정원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적색무늬의 이색적인 소재 적엽질경이

- 잎의 질감과 무늬가 좋은 고급종
- 포인트 또는 일정한 면적에 군식해도 좋다.



그라스 정원의 대표식물 역새 파랑새

- 키가 작고 조밀한 역새
- 단독, 군식, 혼식, 혼성 어디에도 좋다.



정원의 필수선택

무늬병꽃나무

- 잎이 아름다운 적엽, 황금, 황금무늬병꽃
- 생육이 강하고 군식, 열식, 모두 좋은 수종이다.



정원 또는 웅벽이나 암석사이 식물로도 좋은

물싸리

- 꽃색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이 있다.
- 석축의 암석사이식물로 효과적이고 암석가든이나 옥상정원에 매우 잘 어울린다.



겨울 상록의 신소재

포텐틸라 누크

- 하얀 볼꽃, 가을 단풍, 겨울상록의 소관목
- 일반 정원 뿐만 아니라 암석가든용으로 안정맞춤



상록성의 조밀한 소재

코트너아스터

- 겨울에도 잎과 열매가 달려 있어서 겨울정원의 대표적인 관목
- 수목하부, 돌매지용, 암석가든 등에 좋다.



아름다운 덩굴미인

클레마티스

- 꽃이 아름다워 정원용 뿐만 아니라 분화용으로 좋은 소재
- 품종에 따라 화색과 크기가 다양하여 구미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봄을 수놓은 아름다운 꽃햇살

양골담초

- 우리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신소재 관목
- 초화류와도 매우 잘 어울리고 군식 및 열식해도 좋다.



어떤 식물과도 조화로운 소재

매자나무

- 그린색, 적색, 노란색의 아름다운 잎은 최상의 경관 관목이다.
- 암석가든, 돌매지, 띠죽지용으로 이용가능하다.



그라스의 이해 - ③

햇살담은
초록의 바람

털수염풀



털수염풀(*Stipa tenuissima*)은 북미와 남미에 걸쳐 분포하는 화본과의 다년생식물로 키는 60cm정도로 자라며 잎과 줄기는 가을과 부드러운 5-6월에 꽃이 피면 거의 완상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특히 밝은 연초록의 잎과 이삭이 역광으로 해를 받으며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경관하지 않고는 행언하기가 어렵다. 꽃밥의 끝에 털이 있어 하얀 일련이는 빛을 연출하는 최상의 모양으로 역세의 느낌보다도 훨씬 아름다움으로 다가와 꼭 말로 표현하자면 너무 아름다워 가슴이 울렁거림으로 표현하면 될까?

우리나라에 있는 참나래새, 나래새, 수염풀 등과 비슷한 면은 있지만 꽃이 피었을 때 볼 수 있는 그 부드러움과 비단, 그리고 염색의 고급스러움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식물이다. 여름이 지나면서 머리에 갈색 염색을 하듯 희

끗희끗 물들여가는 가을의 느낌은 물론 갈색으로 변한 겨울의 풍경까지도 고스란히 멋을 간직한 아주 훌륭한 소재이다. 단독으로 나열을 하거나, 언덕의 큰 군락으로 식재해도 즉 어떻게 심어도 좋은 식물이다.



간섭에도 잘 견디며 양지쪽이 좋다. 분화용으로든 매우 좋아 디스플레이용으로든 매우 좋은 뿐만 아니라 행사 축하화분 등으로도 유용한 고급 소재이다.



관리에 있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포기나 커졌을 때 잘 마칠에 포기의 중간이 썩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풍을 좋게 해주고 되도록 물 빠짐을 좋게 해준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른 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상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는데 봄이 될 때까지도 겨울의 마른줄기가 보기 좋아 자라는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리고 가는 털로 이루어져 이른 봄 봄을 놓아 태우고 싶은 충동이 있어도 불로 태워서는 곤란하다. 아주 조밀한 포기를 형성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겨울눈이 살아 있어 생육에 절대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



벽화수 에코블럭

“옹벽에 식물을 심어 도시를 숲으로 만들자”

이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식별번호 : 23055519

벽화수 에코블럭은 새로운 특허 제품입니다.



OK!
산림에도,
도로에도,
공원에도,
하천에도,
담장에도

“한번 써 보면 **고객**이 됩니다”

지난 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 **벽화수 에코블럭**은 도시 속 숲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사랑 받고 있습니다.

- 주요실적 -

- 2016.05 강동 송상산 입구
- 2016.10 예산산림문화 박물관
- 2016.11 서울 중랑 봉화산 용기테마공원
- 2016.12 서울 강동 명일근린공원
- 2016.12 서울 강동 고덕천 생태하천
- 2017.03 전주 한옥레일바이크
- 2017.04 산림조합 전남본부(곡성)
- 2017.05 서울 강동 샘터근린공원
- 2017.05 서울 서초 남부순환로
- 2017.06 서울 강동 별말근린공원
- 2017.06 경남 함양 안의면사무소
- 2017.07 서울 송파 중대초등학교
- 2017.08 인천광역시 계양구
- 예정 서울숲
- 예정 강동 명일근린공원
- 예정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구입문의  **벽화수주식회사**
T. 055)964-7993 / HP. 010-9772-6661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69



도심의 콘크리트 위에는 일반적으로 원형화분을 이용하여 꽃을 디스플레이 해왔다. 화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디자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시간형태의 오아시스(박스정원)은 연결이 가능하므로 도심광장, 행사장, 옥상 등 콘크리트위에 쉽게 원하는 정원(야생화, 혼합정원, 관목정원, 암석정원, 텃밭정원, 화기정원 등)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저수관이 있어 1회 관수로 오랫동안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저관리형이라는 장점이 있다.

오아시스(박스정원)을 이용한 여러 현장을 소개해 본다.

광주 5.18 민주화광장

민주화광장은 광주에서 상징성이 강한 구도심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이기도 하다. 분수대 가장자리에 약 70개의 오아시스를 배치하여 첫째에는 약 100여종의 식물을 이용하여 혼합정원, 관목정원, 암석정원, 갈라정원 등을 선보였고 두 번째해인 올해에는 일년초 위주로 보완식재하여 작년과는 또다른 새로움을 선보이고 있다.



파주시

파주시는 마을단위로 시민들이 꽃을 직접 심고 가꾸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사전숙의 법원읍은 마을안에 설치된 전경이고 운동장은 유휴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무지개정원을 조성하고 그 앞쪽 진디밭 양쪽 경계로 오아시스를 설치하여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다.



군포 초막골 생태공원

작년에 개장한 초막골 생태공원 초입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혼합식재정원이 눈에 확 들어온다. 그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선위에 일년초, 다년초, 관목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연출된 오아시스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구 광장에 오아시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변에 일년초 꽃화분이 별도로 있어 오아시스에는 주로 상록성의 관목들을 식재하였고 포인트로 꽃을 이용하여 연출한 사례이다.



각종 박람회 및 행사장

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디스플레이 용으로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재이다. 설치 편리하고 원하는 소재(초화류, 관목, 채소 등)를 가지고 정원을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동도시농업박람회

군포 철목축제



서울정원박람회

일산 식생활박람회

파주 법원읍 희망 꽃축제

구근식물(Bulb) - ③

툰립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이른 봄 무채색 경관에 색감을 주어 그 가치를 높여주고 백합류와 글라디올러스와 같이 여름에 꽃피는 추식구근은 화단을 화려하게 만들어 꽃이 크고 눈에 잘 띄는 좋은 절화용으로 이용한다. 이와같이 구근은 정원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어 가든인에서 구근식물에 대해 안내해 드리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가을에 식재해야 봄에 효과가 더 좋은 추식구근의 대표주자

툰립



툰립은 이제 봄 정원의 대세가 되어버린 구근식물이다. 추위에 매우 강해 그 전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얼음이 얼기전에 식재해주면 이듬해 아름다운 봄꽃을 선물해주는 식물이다. 이는 꽃이 피기전 주위를 켜야 화아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추위를 맞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 아주 알맞은 조경식물종이라 할 수 있다.

툰립은 10년전만해도 대부분 절화, 분화용 소재로 국내에 약 1,000만구 정도 소비가 되었는데 현재 국내에 소비되는 툰립의 양은 약 3,000만구 정도로 절화용, 분화용으로 줄어가는 추세이고 오히려 조경용으로 2,000만구 이상 가을에 식재되고 있다. 이제는 툰립은 중요한 조경

소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툰립은 봄 정원에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다.

초기 조경에서의 이용범은 주로 에버랜드, 강원랜드 등의 레저문화단지 또는 지자체 축제현장에 대규모 식재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기존의 잔디밭에 구멍을 뚫어 식재해도 아름다운 봄 경관을 감상하고 꽃이 지면 본연의 잔디광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개인정원의 잔디밭이나 골프장의 주요 보행로 주변의 잔디밭에 식재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 정원의 숙근초 사이사이에 툰립을 혼성식재하면 4월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아직 꽃이 없는 봄 정원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툰립이 질 때쯤 본격적으로 숙근초들이 개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혼합식재정원, 암석가든, 장미정원, 완엽수아래 음지정원 등에 툰립을 혼성식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

Gardenin Plant 툰립 알아보기

① 식재 시기

10월에서 11월경에 심는다. 가을에 심는 툰립 구근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겨울의 저온을 필요로 한다. 가능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심는 것이 좋다.

② 장소

햇빛이 잘 드는 양지쪽이나 활엽수림 아래 하부 식재도 가능하다. 토양은 부드럽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양이 좋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알뿌리가 썩게 되기 쉽다. 보수력과 배수력을 높이기 위해 부엽토, 퇴비, 톱밥 등 자연유기물을 충분히 섞어주면 다음해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충분히 볼 수 있다.

③ 심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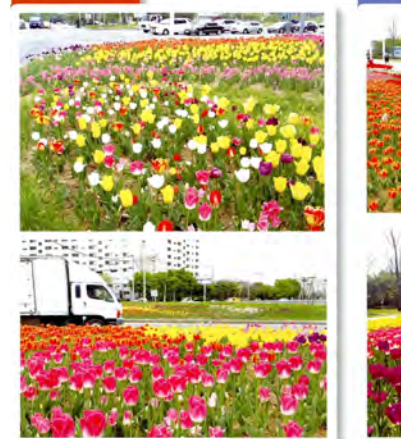
토양의 양분을 더해주기 위해 퇴비나 유기물을 식재전에 섞어 주면 좋다. 구근을 심는 구멍의 깊이는 구근의 크기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의 깊이가 적당하다. 구근의 방향은 알뿌리의 뾰족한 방향이 위를 향하게 심는다. 심는 간격은 일반적으로 구근의 2-3배 폭 또는 10-12cm정도가 적당하다. 구근식재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툰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현장

시흥옥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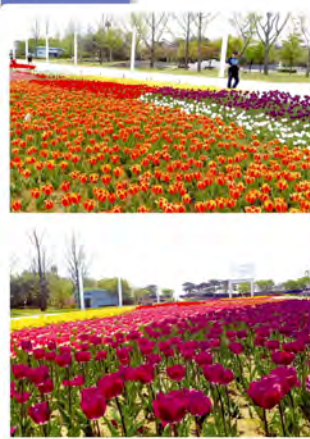


영등포 녹지대



영등포 고덕천 서면 하부

월드컵공원



강동구 성내동 교동천

안양천



종량 봉수대공원



종량 용마폭포공원



봄이 왔습니다!! 가을에 심는 봄꽃!

툰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기간티움

아름다운 툰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 등 이 모든 봄꽃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가을에 심는 구근 식물은 기존의 야생화 화단, 꽃잔디 화단, 잔디밭 등 어떤 작물이 있어도 심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우량의 구근(묘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구입문의 🌸 농업회사법인(주) 우리씨드
전화. 031-634-7990 010-3622-1945

식생매트

- ① 식생매트는 식재후 빠른 효과, 편리한 시공으로 앞으로 조경현장에 그 쓰임새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생매트는 단순한 녹화만을 위한 피복개념에서 벗어나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 ② 식생매트 설계시 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로서 참고하고 설계시 편리하도록 급관자재 식별번호를 첨부하였습니다.



구분	품명	규격	식별번호	단가(원)	과명	화색	회기	초장	비트
1	가우라	340×500mm	22467136	12,400	바늘꽃과	하양	6-10월	70-100	양지/반양지
2	가우라(메이바)	340×500mm	22467684	15,600	바늘꽃과	분홍	6-10월	50-60	양지/반양지
3	갈대	340×500mm	22467131	11,200	화본과	이삭형	9-11월	170-200	양지
4	갈뿔매세이	340×500mm	23158051	13,000	화본과	무늬종	6-7월	150-170	양지
5	그랑	340×500mm	23167806	13,000	화본과	이삭형	8-9월	50-70	양지
6	금계국	340×500mm	22467135	11,000	국화과	노랑	5-6월	50-70	양지
7	금계국외3종혼합	340×500mm	23158048	14,000	국화과 외	다양	5-9월	50-70	양지
8	고리꽃(금루)	340×500mm	22458112	12,370	현삼과	보라	6-9월	40-50	양지/반양지
9	꽃범의귀과	340×500mm	22467134	12,400	꽃범의귀	분홍	7-8월	60-80	양지
10	꽃잔디	340×500mm	22349423	10,500	꽃잔디과	분홍	4-5월	10	양지
11	꽃잔디레드아이	340×500mm	23158065	13,000	꽃잔디과	분홍	4-5월	10	양지
12	꽃잔디레드아이	340×500mm	22354236	12,300	꽃잔디과	분홍	5-6월	50-60	양지
13	꽃잔디(메들라드)	340×500mm	23158066	13,000	꽃잔디과	보라	4-5월	10	양지
14	꽃창포	340×500mm	22460699	11,000	붓꽃과	보라	5-6월	50-70	양지
15	꽃의대리	340×500mm	22458116	12,750	미나리아재비과	하양	7-8월	150-170	양지/반양지
16	노랑속고코스모스	340×500mm	22349425	12,300	국화과	노랑	6-10월	30-50	양지
17	노랑개비	340×500mm	23161721	16,000	국화과	보라	9-10월	60-80	양지
18	달개비	340×500mm	22349426	13,100	달맞이꽃과	분홍	6-8월	30-50	양지/반양지
19	대사초 골드라이트	340×500mm	23161909	17,000	사초과	무늬종	10	반양지/양지	
20	두메부추	340×500mm	23158060	12,000	백합과	분홍	8-9월	20-30	양지
21	띠	340×500mm	22467130	12,400	화본과	하양	5-6월	20-30	양지
22	맥문동	340×500mm	22467124	10,000	백합과	보라	7-8월	20-30	양지/반양지/양지
23	모나로디	340×500mm	23161719	13,000	꽃범의귀	분홍	6-8월	60-80	양지
24	물리나리아무어	340×500mm	23158062	16,000	화본과	관엽형	7-9월	20-30	양지
25	물리나리아무어	340×500mm	23162242	13,000	침입과	노랑	5-6월	20-30	양지/반양지
26	무늬대사초	340×500mm	22467123	15,600	사초과	무늬종	10	반양지/양지	
27	무늬백문동	340×500mm	23158063	19,000	백합과	보라	7-8월	20-30	양지/반양지/양지
28	무늬비비추	340×500mm	22349432	13,100	백합과	보라	30-40	반양지/양지	
29	무늬수호초	340×500mm	23158063	16,000	화양목과	무늬종	15-20	양지/반양지/양지	
30	무늬수호초	340×500mm	22467114	12,400	국화과	보라	8-9월	50-70	양지
31	물리나리아무어	340×500mm	22467149	8,000	화본과	이삭형	9-11월	170-200	양지
32	부처꽃	340×500mm	22467132	9,500	국화과	보라	7-9월	50-70	양지/반양지
33	부처꽃	340×500mm	22467137	12,000	부처꽃과	보라	5-6월	50-70	양지
34	부처꽃	340×500mm	22349416	10,500	부처꽃과	분홍	6-8월	70-100	양지
35	사사	340×500mm	23158045	16,000	화본과	관엽형	30-50	양지/반양지/양지	
36	새털무마운틴	340×500mm	22467681	13,600	화본과	관엽형	8-10월	70-80	양지
37	상록양지꽃	340×500mm	22467119	13,600	침입과	노랑	4-5월	10-15	양지/반양지
38	상록잔디(메들라드)	340×500mm	22467126	15,200	석죽과	분홍	5-10월	10	양지
39	사스타데이지	340×500mm	22467109	11,200	국화과	하양	5월	50-60	양지
40	세덤	340×500mm	22349440	9,700	돌나물과	혼합	6-8월	10	양지
41	속새	340×500mm	23158052	15,000	속새과	관엽형	50-60	양지/반양지/양지	
42	송악	340×500mm	22477408	12,400	두릅나무과	관엽형	당글성	양지/반양지/양지	
43	수크림	340×500mm	22467128	10,000	화본과	이삭형	9-11월	60-70	양지
44	수크림외2종	340×500mm	22991789	13,000	화본과 외	이삭형	6-11월	50-70	양지
45	수호초	340×500mm	22467122	13,600	화양목과	관엽형	20-30	양지/반양지/양지	
46	스텔라워수리	340×500mm	22349445	12,300	백합과	노랑	5-9월	30-50	양지/반양지/양지
47	아스타라드	340×500mm	23161911	11,000	국화과	보라	9-11월	70-100	양지
48	아스타라드(메들라드)	340×500mm	23163053	11,000	국화과	하양	9-11월	70-100	양지
49	아이스댄스	340×500mm	23158065	18,000	사초과	무늬종	30-50	양지/반양지/양지	
50	아스카	340×500mm	22467111	13,600	꽃범의귀	보라	4-5월	10	양지/반양지/양지
51	양지꽃	340×500mm	22467149	12,400	침입과	노랑	4-5월	10	양지
52	야생	340×500mm	22467127	11,200	화본과	이삭형	9-11월	170-200	양지
53	야생고리꽃(메들라드)	340×500mm	23158061	16,000	화본과	이삭형	9-11월	170-200	양지
54	야생고리꽃(메들라드)	340×500mm	23158054	15,000	국화과	다양	6-8월	50-60	양지/반양지
55	야생고리꽃(메들라드)	340×500mm	22458227	12,370	국화과	분홍	6-8월	70-80	양지/반양지
56	옥잠화	340×500mm	23161910	17,000	백합과	보라	6-7월	20-30	반양지/양지
57	옥잠화	340×500mm	22477400	14,000	백합과	하양	7-8월	30-50	반양지/양지
58	양아주가	340×500mm	22349449	13,100	꽃범의귀	보라	4-5월	10-15	양지/반양지/양지
59	양잠아스타	340×500mm	22349450	11,400	국화과	노랑	6/9-10월	20-30	양지
60	양잠아스타	340×500mm	22467133	11,000	백합과	노랑	6-7월	50-70	양지/반양지
61	양잠아스타(사카고)	340×500mm	22477396	13,600	백합과	빨강	여름(6-8월)	50-70	양지/반양지
62	적멸꽃	340×500mm	23161720	14,000	영초과	노랑	6-7월	60-70	양지/반양지
63	적멸꽃	340×500mm	22467120	12,400	침입과	관엽형	6-8월	20-30	양지
64	적멸꽃로비	340×500mm	22467125	12,400	콩과	하양	5-6월	10	양지/반양지
65	줄사초	340×500mm	22467146	13,600	화본과	관엽형	15-20	양지	
66	귀뚜라미	340×500mm	23254233	11,400	현삼과	보라	5-6월	10	양지/반양지/양지
67	귀뚜라미(메들라드)	340×500mm	23158057	13,000	돌나물과	빨강	8-10월	30-50	양지
68	귀뚜라미(메들라드)	340×500mm	23170419	15,000	화본과	이삭형	5-6월	30-50	양지/반양지
69	꽃수국	340×500mm	22426931	12,750	국화과	혼합	6-10월	50-70	양지
70	꽃수국	340×500mm	22349453	12,300	국화과	빨강	6-10월	50-70	양지
71	꽃수국(혼합)	340×500mm	22426933	12,750	국화과	빨강	6-10월	70-80	양지
72	꽃수국	340×500mm	23158044	17,000	국화과	관엽형	5-6월	20-30	양지
73	꽃수국	340×500mm	23158058	16,000	사초과	관엽형	5-6월	50-70	양지
74	꽃수국	340×500mm	23158059	15,000	합죽과	하양	5-6월	당글성	양지/반양지